

대전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막개발·헛공약 선정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06. 5. 25(목) 오후 3시

· 장 소 : 대전YMCA 5층 강당

사 회 : 박상우(사무처장 / 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

개 회

인사말 김규복(상임공동대표 /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참석자 소개

취지 ; 막개발·헛공약 선정의 변(p2)

(정책자문위원)

막개발·헛공약 선정 경과보고(p3)

박정현(공동집행위원장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공약 총평 및 막개발·헛공약 리스트 발표(p6)

김제선(상임집행위원장 /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후보자별 우수공약 및 10대 베스트 공약 발표(21p)

김종남(공동집행위원장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질의응답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www.cham.or.kr/2006vote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회의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 전화: 042-223-0531 / 전송: 042-252-6976

취지 ; 막개발 헛공약 선정을 발표하며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는 이번 531지방선거가 실질적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서 지방선거 본래적 의미로서의 유권자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정책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일색의 공약에서 벗어나 유권자와 후보자들간의 신뢰할 만한 정책들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면서 무분별한 막개발 공약이나 헛공약을 가려내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521지방선거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그리고 후보자들의 노력으로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각 후보자들 마다 이행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을 보강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개발 정책이나 헛공약, 가로채기 공약, 재탕공약 등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개발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 수립과정에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일면 이해하나, 이렇게 내놓은 공약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발공약들을 내세우면서도 생태적 개발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결같이 지방의 한정된 재원을 일부 토건세력에게만 몰아주어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교육, 문화, 복지, 주택, 환경, 교통, 행정혁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여러 공약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뚜렷한 정치적 쟁점보다는 우리 지역의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나 사회양극화 문제, 주민참여형 행정혁신 공약 등의 의제가 다양화하고 다변화되었다는 것은 신선한 변화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여전히 개발을 전제로 한다거나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가로채기하거나 재탕해서 내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직 단체장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 새롭게 출마한 상당수 후보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몰이해 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준비가 부족한 탓에 제시하는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7일 후면 새롭게 지역 살림을 맡아나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막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에 이어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막개발, 헛공약을 선정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표가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토론되어져서 후보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의제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지역정치의 장을 대전이 선도해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분명히 밝혀둘 것은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막개발, 헛공약은 특정후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느 후보가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결코 그 후보의 공약 전체가 문제투성이라거나 부적절한 후보라는 의미는 아니며, 여기에 해당되는 공약이 없다하여 그 후보의 공약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70% 이상의 공약이 이행계획이나 재원

조달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기추진사업을 재탕하거나 가로채기 공약 등을 합한다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한 이러한 막개발. 헛공약들을 해당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발표가 투표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표는 이번 531지방선거가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보나마나 라는 식의 선거분위기가 아니라,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반쪽짜리 선거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내용을 근거로 후보간 정책대결이나 뜨거운 논쟁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방향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권자들 역시 이러한 시민단체의 검증평가의 내용에 귀기울여 후보자 선택의 여러가지 기준 가운데에 또하나의 합리적 판단 근거로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표하는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막개발 헛공약 선정 경과 보고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대전연대)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 헛공약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전국적으로 막개발 헛공약 선정을 위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선거대전연대는 지난 5월 8일부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5월 19일까지 전체공약을 수집하였다. 이어 5월 19일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대표적인 막개발.헛공약 예비리스트를 정리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예비리스트 67개에 대해 5월 20일 대전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의견분포도를 확인하였고, 5월 22일 예비리스트 67개에 대하여 후보들의 소명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22일 밤에 개최된 정책자문단과 집행위원회에서 유권자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43개의 예비리스트에 대하여 후보들의 소명자료 검토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평가하여 17개의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11대 막개발.헛공약을 선정하였다.

□ 공약평가 및 막개발.헛공약 선정과정

- 2006. 5. 2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대전지역 정책자문단 및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워크샵
- 2006. 5. 4 공약분석기준 마련을 위한 전국 워크샵(전국 정책평가자문위원회)
- 2006. 5. 10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10대 기준 발표(전국 동시)
- 2006. 5. 8~19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수집
- 2006. 5. 19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 2006. 5. 20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유권자위원회
- 2006. 5. 22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소명 요청
- 2006. 5. 22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및 집행위원회
- 2006. 5. 25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약분석 및 막개발.헛공약 선정결과 발표

1) 막개발.허공약 기준 선정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는 5월 4일 전국 워크샵에서 마련된 공약평가 10가지 지표를 대전지역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허공약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즉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 등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관된 환경, 문화, 사회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가치가 반영되었는가 하는 지속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참고> 막개발. 허공약 선정을 위한 10대 기준

지속가능성	1. 대기, 수질, 녹지, 생물종 등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는가? 2. 문화재 등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3.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인가? 4. 지역내 산업연관을 높이고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며 지역내에서 분배되고 재투자되는 정책인가? 5.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실현가능성	6. 공약에 대한 자원마련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7.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8.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제도와의 상충여부가 검토되었는가? 9. 제시된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10. 사업기간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적절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재정자립도가 15~39% 수준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이행계획 부문의 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대전연대는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였으며, 막개발.허공약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1)핵심적 기준으로 정책방향도 잘못되고 이행계획도 없는 공약, 2)이행계획은 있으나 막개발인 공약, 3)이행계획이 다소 부족한 공약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참고> 2006년도 5개구별 재정자립도 (단위: 천원)

구 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일반회계	145,000,000	130,978,000	169,128,000	123,360,000	138,000,000
자체세입	22,660,246	32,819,075	51,890,620	48,476,940	33,661,797
자립도(%)	15.63	25.06	30.68	39.30	24.39

<참고> 2006년도 5개구별 세입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입총괄	145,000,000	130,978,000	169,128,000	123,360,000	138,000,000
지방세수입	8,233,500	11,651,738	25,408,000	25,000,000	12,463,004
세외수입	14,426,746	21,167,337	26,482,620	23,476,940	21,198,793
예탁금및예수금 (잡수입제외)	-	-	3,000,000		
지방교부세	1,500,000	2,000,000	2,600,000	-	873,000
조정교부금	56,000,000	46,000,000	50,300,000	26,444,465	36,000,000
보조금	64,839,754	50,158,925	64,337,380	45,938,595	65,965,203
국고보조금등	38,144,016	30,175,287	32,131,310	16,603,828	30,897,465
시도비보조금	26,695,738	19,983,638	32,206,070	29,334,767	35,067,738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	-	2,500,000	1,500,000

<참고> 2006년도 5개구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출총괄	145,000	130,978	169,128	123,360	138,000
경상예산	56,572	54,234	66,682	47,033	44,427
인건비	39,200	37,205	43,548	28,641	28,852
경상적경비	17,372	17,029	23,134	18,392	15,575
사업예산	86,653	73,652	96,084	70,892	91,606
보조사업	75,216	60,761	76,230	53,701	77,451
자체사업	11,437	12,891	19,854	17,191	14,155
채무상환	-	-	2,461	422	287
지방채상환	39,200	37,205	43,548	28,641	28,852
채무부담행위상환	-	-	1,500	-	-
예비비등	1,775	3,092	3,901	5,013	1,680
예비비	1,660	1,332	3,051	3,886	1,591
기 타	115	1,760	850	1,127	89

2)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수집

공약수집은 기초단체장 후보 20명에게 표준양식을 작성하여 요청하였으며, 공약수집의 최종시한은 5월 19일까지의 공약으로 한정하였다. 수집 방식은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토록 하는 표준양식을 작성하여 각 후보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여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수집한 것이며, 각 후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보완, 수집하였다.

다만 제출시한까지 답변하지 않은 3명(김정태, 박태우, 가기산)의 후보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이나 각 후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보완, 수집하였다. 그러나 동구청장 김정태 후보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제시된 공약을 수집할 수가 없어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약수집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총 381개의 공약이 수집되었다.

<참고> 공약수집양식

선거구	출마자	정당	공약명	분야	내용	건설/비건설	예산/비예산	사업기간	이행평가계획 평가척도유무	비고

3)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지난 5월 19일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 총 381개의 수집된 공약에 대해 각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권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막개발.헛공약 예비리스트 - 19명의 예비후보, 총 67개의 공약을 선정하였다.

<참고> 정책자문단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전문가와 공동집행위원장단으로 구성됨.
- 강현수(중부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강호정(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겸훈(대전시민사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김선미(대전문화연대 대표) 김선태(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혜천(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기형(우금치 대표) 류진석(충남대 사회복지학 교수) 문현웅(변호사, 법률자문) 박경(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손상희(대전대 아동벤처산업학과 교수) 최정석(중부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정우(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안정선(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원구환(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유병로(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동규(충남대 회계학과 교수) 장수찬(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조영탁(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4) 막개발.햇공약 선정을 위한 유권자위원회 개최

5월 20일 개최된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유권자위원 59명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 집행위원 등 총 83명이 참석하였다. 유권자위원들에게는 총 381개의 전체공약집을 배포하여 추가로 선정해야 할 공약에 대해 자유롭게 개진토록 하였으며,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검토된 막개발.햇공약 예비리스트 67개 공약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그 공약의 내용과 추천사유를 검토한 후 의견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유권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방식은 유권자위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각 공약내용에 대한 의견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적색(막개발.햇공약 우려가 큼), 청색(막개발.햇공약 우려가 적음), 백색(막개발.햇공약 판단이 어려움)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각 공약별 투표를 진행했다.

5)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소명 요청

5월 22일 기초자치단체장 20명의 후보(공약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에게는 미제출 사유를 소명토록 함)에게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예비로 선정된 67개 공약 중 해당되는 공약에 대하여 소명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고 20명의 후보자 전원에게 회신을 접수했다.

6)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햇공약 선정을 위한 정책자문단 및 집행위원회 개최

5월 22일 밤에 개최된 정책자문단과 집행위원회에서는 유권자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43개의 예비리스트에 대하여 각 후보들의 소명자료 검토와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한 2차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17개의 막개발.햇공약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11대 막개발.햇공약을 선정하였다.

공약 총평

1)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가 여전히 많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약속하기)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그 어느 선거보다 정책선거로의 다짐이 많았던 선거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5월 1일, 지방선거대전연대와 각 예비후보자들이 모여 반부패 청렴협약식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선거 중심의 선거운동을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대전연대가 분석대상으로 한 총 381개의 공약 중 58개(15.2%)의 공약만이 예산계획 등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밖에 예산계획이 비구체적인 공약으로 분류된 51개 공약 이외에 272개(71.4%)의 공약은 재정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후보자별로 보더라도 9명(47.3%)의 후보자가 예산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매우 부실하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막개발, 헛공약 예비 리스트로 선정되어 소명을 요청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출한 후보는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선거등록일 까지도 구체적인 공약을 게시하지 못하는 후보(국민중심당 동구청장 후보 김정태)도 발생했다. 또는 용어 사용에 있어 격식과 품위를 고려한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공약명과 공약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정책도 있었으며, 소명자료와 본래의 공약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재정자립도 15~39%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다름없다는 후보자들의 정책선거 의지 빈약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지방정치에 출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정책선거의 외양을 갖춰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정책과 대규모 건설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이 개발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후보자들이 공약 수립과정에서 이를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정자립도 15~39% 수준의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이행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의 미흡 여부를 떠나 새로운 개발 공약 대부분은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헛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총 381개의 공약 중 건설 분야로 명기된 공약은 107개(28%)로 분류되었으나, 비건설 분야로 명기된 공약들 역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건설 관련 공약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양극화 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고용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소득 증대 등의 제도적 방안보다는 00센터 설립, 00타운 건설 등 건설 관련 해소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직 단체장의 경우, 구체적인 공약 발표에 소극적이거나 기추진사업을 재탕하는 공약이 많다.

현직 단체장의 경우 매니페스토(참공약)에 상위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공약 발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또는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재탕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진동규 후보를 제외하고는 재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예산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확정된 사업을 재탕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5) 가로채기 재탕 공약, 황당 공약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공약도 문제가 많다.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 종합복지계획 수립’, ‘구민서비스를 위한 성과관리능력시스템 도입’, ‘권역별 웰빙타운 조성’, ‘선진구정운영시스템 완성’,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구축 향토목 제조 체험 시험 조성’, ‘갑천좌안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1공무원-1가정 자매결연 등 모범적 복지시책 전개’ 등은 이미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결정되어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막개발, 헛공약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공약은 일종의 가로채기, 재탕 공약으로 생색내기 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인맥으로 밖에 재원이 설명되어질 수 밖에 없는 ‘화교자본 1조원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내놓는다거나 특구 이외에는 현행법상 외국대 분교 유치가 불가함에도 ‘필리핀대 분교’를 유치하겠다는 웃지못할 황당한 공약도 막개발, 헛공약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들 가운데 ‘선진생태하천 및 선진체육공원 조성’, ‘5대 하천 살리기’, ‘대덕밸리 R&D + B 구축’, ‘행정도시-신탄진-청주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추진’ 등은 일종의 기대기 공약으로 분류하여 막개발.햇공약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최종 선정된 17개의 막개발. 햇공약의 특징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가 막개발. 햇공약으로 선정한 대상은 총 19건이나 이중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은 동일지역의 환경문제가 선정사유가 되었으므로 공약의 갯수로 보면 총 17개이다. 이를 정당별로 분석하면 열린우리당 6개, 한나라당 7개, 국민중심당 3개, 무소속 3개로 총 19건이며, 지역적으로는 동구 7개, 중구 3개, 서구 1개, 유성구 5개, 대덕구 3개로 나타났다.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가 선정한 막개발. 햇공약

1)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막개발. 햇공약 리스트

11대 막개발.햇공약 리스트			
선거구	출마자	정당	공약명
동구	권득용	열린우리당	① 주차문제의 획기적 개선 ② 추동리 갈대숲 조성, 갈대축제 개최
동구	이장우	한나라당	③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동구	박병호	무소속	④ 기업도시 조성과 동남부권 개발
중구	이은권	한나라당	⑤ 민자유치(제3섹터,프로젝트파이낸싱,기부채납 등)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내 주거환경사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
중구	이기호	무소속	⑥ 문화컨텐츠산업 연구개발 및 유지
유성구	노중호	열린우리당	⑦ -1. 봉명동 워터파크 건설
	진동규	한나라당	⑦ -2. 24시간 평생학습관 건립
	박종선	국민중심당	⑦ -3. 워터파크 시설이 포함된 유성온천 전통문화촌 건설
유성구	박종선	국민중심당	⑧ R&D특구 활성화 및 정비 ⑨ 사교육 강사료 지원
대덕구	박영순	열린우리당	⑩ 대청호 관광벨트 조성 - 수상이벤트 공원 설치
대덕구	정용기	한나라당	⑪ 대청댐 수리권 확보 및 이익금 환수

막개발.햇공약 리스트			
선거구	출마자	정당	공약명
동구	권득용	열린우리당	① 인터넷 교육방송 자체 실시
동구	이장우	한나라당	② 특목고, 인터넷 스쿨로 고품격 교육환경 제공
			③ 청소년 수련관을 영어마을로 전환. 숲교실, 전통문화와 연계한 영어체험파크
중구	이기호	무소속	④ 중구복지재단 설립
서구	가기산	한나라당	⑤ 도시근교농업 소득증대사업을 추진
대덕구	박영순	열린우리당	⑥ 영어체험마을 조성

2) 대전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11대 막개발·헛공약

열린우리당 권득용(동구)	① 주차문제의 획기적 개선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주차단속 프리존(단속없는 구역), 프리타임제(단속없는시간제) 실시 등 지역상권보호와 주민불편해소 - 예산계획 : 비예산사업 - 사업기간 : 임기동안
선정사유	주차문제 해소가 아닌 역교통 혼잡문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도시교통정책과 연계된 종합적 대안이 아님. 주차난 해소의 실효성 결여.

<소명자료>

- 주민불편해소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주차단속제도 전면 재검토
- 정책취지 : 서민의 생업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차별적 주차단속으로 인해, 서민들은 하루벌이를 모두 주차과태료로 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음.
- 정책실천방안 : 동구지역에 주차문제로 인해 서민생업이 심각하게 지장 받거나, 지역상권의 접근을 막는 주차단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교통량 조사 이후, 주차단속이 없는 지역을 지정하는 주차프리존과 주차단속이 없는 시간을 마련하는 주차프리타임제를 실시.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 주차단속이 없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혼잡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대해 우선 교통량의 정확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 이후 주차단속요원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인력으로 대체함.

열린우리당 권득용(동구)	② 추동리 갈대숲 조성, 갈대축제 개최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 - 예산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관광개발예산 확보) 4개년 계획 - 사업기간 : 임기 4개년 계획
선정사유	균특회계 지역개발 계정의 자금 지원을 적시하는 등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변에 환경오염원을 증가시키는 계획임.

<소명자료>

- 추동리 갈대숲조성, 갈대축제 개최
- 정책취지 : 식장산과 대청호라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추동리에 갈대숲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키워냄.
- 정책실천방안 : 국가균형특별회계에 관광개발예산을 확보하여, 추동리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갈대숲을 조성함. 이후 교통망정비를 통해 식장산과 대청호를 잇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냄.

<p>한나라당 이장우(동구)</p>	<p>③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p>
<p>세부내용</p>	<p>어린이 교육과 공원관리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노인층 인력 투입으로 일하는 노인, 건강 동구의 초석 마련 건강 증진 센터기능을 가진 전원형 실버산업 단지(가칭 동구 실버랜드) 집중 유치로 은퇴자와 노인이 행복한 동구 건설</p> <p>1) 추진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운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후 전원형 실버산업 단지 유치 - 각급학교에 퇴직교역자와 문화계 은퇴자의 방과 후 교육장 설치 - 어린이 안전과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훈장제 시행 <p>2)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인력 활용한 동구지역 특산물 포장센터 설립 - 대학병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센터 및 여가 파크 - 초등학교 : 명예훈장제로 방과후 교육 담당 - 공원관리 인력에 노인층 우선 취업제 명문화 <p>3) 추진시기 및 절차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하반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합의 도출 - 2007년 상반기 : 실버랜드 지구 지정 - 2007년 하반기 : 실버랜드 개발 마스터 플랜작성 - 2009년 상반기 : 설계 작업시행, 기반공사 진행, 착공
<p>선정사유</p>	<p>실버랜드는 주로 노인 요양휴양시설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움.</p>

<소명자료>

- 정책타당성 : ① 어린이 교육과 공원관리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노인층 인력 투입. ② 건강증진센터기능을 가진 전원형 실버산업 단지(가칭 동구 실버랜드) 집중 유치로 노인이 행복한 동구 건설. ③ 동구지역 특산물 포장센터 설립후 노인인력 활용. ④ 대학병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센터 및 여가 파크
- 재원마련 : ① 예비군 훈련장이전 비용은 국비 지원. ② 실버랜드는 대학등 건강센터 입주 희망자의 민간 투자 방식. ③ 실버랜드나 포장센터등은 수요자 부담원칙.
- 구체적 이행계획 : ① 예비군 부대 이전 추진 기획단을 포함한 실버랜드 추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② 친환경 공간 건립을 위한 여론 수렴 공청회 개최. ③ 실버랜드 참여 대학 및 민간 사업자를 위한 설명회. ④ 일하는 실버랜드 참여업체 선정. ⑤ 노인 일자리 은행 상설화

무소속 박병호(동구)	④ 기업도시 조성과 동남부권 개발
세부내용	- 공약내용 : 1) 판암동과 남대전.C.부근 동남부권 56만평 개발(문화, 상업, 유통단지 등) 2)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기업지원 관련 조례를 연대 마련, 지리적 장점을 활용 대기 업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를 위한 공격적 마팅을 펼치면서, 동남부권 개발 가속화를 위해 투자 유치 노력 및 적극지원 - 예산계획 : - 사업기간 :
선정사유	기초단체장 권한 밖의 사업계획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파괴 우려가 큼. 기업도시(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의 개념과 사업내용의 연관성이 부족함.

<소명자료>

- 재원마련 및 구체적 이행계획 : 이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등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남대전 유통단지내 15만평에 2007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에 관련해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이곳에 기업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연내 구에서 기업지원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지리적 장점을 이용 대기업 및 수도권 기업의 유도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면서, 동시에 동남부권 개발 가속화를 위해 투자 유치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 기초자치 단체장 권한 외 사업은 아닌가? 분명 개발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 등은 기초단체장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함.
- 그린벨트 훼손의 우려 등 : 구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긴 하지만, 현재 구에서 모든 개발계획을 환경우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을 하지는 않을 것임.

한나라당 이은권(중구)	⑤ 민자유치(제3섹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부채납 등)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내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
세부내용	- 공약내용 : - 예산계획 : - 사업기간 :
선정사유	사계절 실내스키돔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민자유치로 자원조달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부족함.

<소명자료>

- 대전을 대표할 만한 상징물, 랜드마크가 없는 상황에서 보문산을 랜드마크로 활용할 필요성있으나, 현재의 보문산은 수영장, 놀이시설, 케이블카 등이 민망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음.
- 현재 보문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기존 시설에 보문타워와 사계절 실내스키돔으로 리모델링한다면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보문산과 중구가 함께 살아날 수 있음.
- 문제는 중구의 1년 예산인 1,500억원으로는 재정자립도가 기껏해야 25%에 불과하다는데 있음. 구예산 1,500억원

가운데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540억원에 이르고, 사업예산은 730억원이지만, 자체사업비는 128억에 불과함.

- 사계절 스키돔을 건설하려면 약 4~5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기부채납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등의 민자유치를 통해 가능함.

무소속 이기호(중구)	⑥ 문화컨텐츠산업 연구개발 및 유지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중구를 선진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문화컨텐츠산업을 연구개발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구경제를 성장시키는 사업 - 예산계획 : - 사업기간 :
선정사유	문화예술과 산업을 연계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의 구체적 내용도 없고 재원대책도 없음.

<소명자료>

현재 중구에는 음식점특화, 자동차특화, 가구특화거리등 많은 특화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것들만이 문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 중구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으능정이축제등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지역사회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내, 외부의 투자유치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연장, 전시회공간, 청소년문화공간의 확보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노중호 (우) 진동규 (한) 박종선 (국)	<p>⑦ -1. 봉명동 워터파크 건설 관련 공약 : 열린우리당 노중호 후보</p> <p>⑦ -2. 24시간 평생학습관 건립 : 한나라당 진동규 후보</p> <p>⑦ -3. 워터파크 시설이 포함된 유성온천 전통문화촌 건설 : 국민중심당 박종선 후보</p>
세부내용	<p>1) 봉명동 워터파크 건설 : 열린우리당 노중호 후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내용 : 무상양여 보류된 봉명동 폐천부지를 구유지로 전환하여 부지확보. 사업방식은 SPC방식 채택 - 예산계획 : 주변사유지 매입비 7억 구예산, 건설비 민간참여 유도 - 사업기간 : 2006년 부지, 2006년부터 2010년 준공 <p>2) 24시간 평생학습관 건립 : 한나라당 진동규 후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내용 : 구청앞 구민 운동장터에 연건평 1,200평 규모(지하1층, 지상3층) 학습관 건립, 종합평생교육관으로 활용 - 예산계획 : 90억 (국비15억, 시비35억, 구비40억) - 사업기간 : 3년(2007~2009) <p>3) 워터파크시설이 포함된 유성온천 전통문화촌 건설 : 국민중심당 박종선 후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앞 폐하천부지에 워터파크시설이 포함된 유성온천 전통 문화촌 건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유성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이자 온천과학 관광 명승지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 예산계획 : 국비, 시비, 구비 - 사업기간 : 임기내
선정사유	<p>사업 추진 장소가 정부 소유지로 지방이양이 불허되고 있으며, 유성천과 갑천 합류지점에 있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함. 여하한 방식으로든 개발하겠다는 것은 환경과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p>

<소명자료> **봉명동 워터파크 건설 : 열린우리당 노중호 후보**

- 현황 : 위치는 유성구 봉명동 496-34번지의 5필지(갑천, 유성천 합류지점), 면적은 55,570m²(16,810평), 하천부지 11,058평, 구유지 3,976평, 사유지 442평, 도로 1,334평, 현재 토지이용은 구민운동장, 국궁장, 양묘장, 도로, 녹지임
- 추진사항 : 1996~1999 : 주변사유지 매입, 2003. 5.19 : 국유재산관리계획제출(유성구→대전시), 2003.11.29 : 관리계획변경에관한 국무회의 심의·확정, 2004. 1. 7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무상양여 보류통보, (홍수피해예방 관련 치수계획 수립후 재검토)
- 추진방향 : 2006년도에 무상양여 보류된 부지 확보, 2006년도에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시행 (용역비 2억원 예상), 2006년에 주변사유지 매입(442평, 7억원), 사업방식은 SPC(특수목적회사설립방식)방식 및 채택, 2007년도 사업파트너 선정 (2~3개의 민간업자 참여의사가 있음)
- 총사업비 800억원 예상(부지: 500억원, 조성 및 건물: 300억원), 2007년부터 사업선정후 착공 2010년 완공
- 재원조달 : 주변사유지 추가 매입비 7억원 및 용역비 2억원 전액 구비로 지원, 조성비등은 민간자본 유치

<소명자료> **24시간 평생학습관 건립 : 한나라당 진동규 후보**

- 위치 : 유성구 봉명동 496-34, 외 5필지. 현 유성구청앞 하천부지. 구민운동장 주변 15,476평. (국유지 11000평, 구유지 4000여평, 사유지 442평)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무상양여 신청.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후 재검토 통보 받아오는 상태.

대전시와 국가 지원 요청중.

- 연건평 1200평 규모 학습관 건립. 예산 : 90억 (국비 15억, 시비 35억, 구비 40억)
- 유성에는 관내 대학을 포함한 69개의 학교와 연구 단지가 있음. 24시간 열린 학습 공간에 대한 열망이 높음. 24시간 열린 문화 학습 공간 제공. 관내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교육 복지 문화와 연결. 인력 3교대 배치. 일자리 창출 효과. 유성을 평생 교육 특화 도시로 만들어갈 것임.

국민중심당 박종선(유성구)	⑧ R&D특구 활성화 및 정비
세부내용	<p>- 공약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공원지정 2)건설교통부 2000-92호로 특구육성종합계획(안)에서 누락된 원촌동을 특구개발계획에 포함, 정비사업추진 3)죽동(충대앞)지구를 교육연구 및 실용화 시설구역에서 해제 4)단지내 둔곡천, 신동천, 탄동천, 반석천 등을 특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정비 5)종합계획(안)에 주 진입로 개설 및 연계도로 계획을 반영, 국가전략산업도로로 지정 6)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수용가능성을 검토, 시설확장 7)특구내 이주민에 대한 현실보상 및 이주대책, 공동지원시설 확보, 고용대책 강구 8)문지지구 특구개발계획(안)에서 제시한 유통시설(17,000평) 일부를 제외, 토지소유자 조합(환지방식)에 따라 자체개발 9)신성지구의 특구개발계획을 배제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상업활동 활성화 추진 <p>- 예산계획 :</p> <p>- 사업기간 : 임기내</p>
선정사유	공약내용을 입증할 세부내용이 전혀 없으며, 유성구의 재정 능력으로 실현 불가능한 개발 계획을 나열함.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공약으로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 현실성이 떨어짐.

<소명자료>

- 재원마련 : 사업 사안에 따라 국비 및 시비, 구비 확보
- 구체적 이행계획 : 1.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실 보상 및 공원지정, 2. 원촌동 지역을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비사업 추진, 3. 죽동지구 교육연구 및 시설지구에서 해제, 4. 단지 내 둔곡천, 신동천, 탄동천, 반석천 등 소하천을 특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정비, 5. 단지 주 진입로 및 연계도로 개설계획(안)을 특구종합계획안에 포함시켜 국가전략산업도로로 지정, 개설, 6. 단지 내 하수의 기존하수처리에 수용, 또는 인구 유입에 대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7. 특구 내 이주민에 대한 현실 보상 및 이주대책, 고용대책, 공동지원시설 확보, 8. 문지지구 개발계획(안)이 제시한 유통시설(17,000평)의 일부를 제외, 환지방식 개발추진, 9. 신성지구 근린생활 시설의 상업활동 활성화 추진
- 구청장 권한 외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 행정편의가 아닌 실용행정을 근간으로 한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보장 차원에서 적극 접근, 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

국민중심당 박종선(유성구)	⑨ 사교육 강사료 지원
세부내용	- 공약내용 : 가계에 부담이 커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각 분야에 전문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배움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사장된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사료 지원 - 예산계획 : 국가예산 및 구비 - 사업기간 : 임기내
선정사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의 방향성에서 이탈하여 사교육 자체를 진흥하는 정책 방향의 문제점과 아울러 구체성과 현실성이 매우 낮음.

<소명자료>

열린우리당 박영순(대덕구)	⑩ 대청호 관광벨트 조성 - 수상이벤트 공원 설치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수상이벤트 공원 설치
선정사유	재원 조달계획 소명에서 언급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제시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높음.

<소명자료>

- 이유 : 6,70년대 대전의 여름철 피서지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신탄진수영장 일대에 일부 유흥시설의 매입을 포함해 하상지역을 재정비하고 또 풀장이나 레저시설을 마련해 신탄진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전과 신도시 시민들로부터 향수와 사랑의 휴식공간으로 복원.
- 목표 : 하절기 청소년 수상체험지 및 가족 휴식공간으로 활용
- 방법 :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해 조성(수계기금이 약 500억(한강수계 3,000억)으로 매우 부족 국고 지원 제안) 관광 벨트 조성 계획시 환경단체와 주민 참여로 상수원 보호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추진. 구청장의 권한은 아니나 대청호 주변의 이해와 요구가 걸려 있는 문제로 대청호에 연접한 5개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한나라당 정용기(대덕구)	⑪ 대청댐 수리권 확보 및 이익금 환수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선정사유	수리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 국가 자원으로서는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소명자료>

현재 대청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연111억임에도, 댐 주변 지원사업비는 연간 24억 정도임.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문화 복지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땅값 등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한나라당 대전시장 충남·북 지사 및 대덕 구청장 후보는 지난 5월 15일 대청댐 홍보관에 모여 현재 발전수익금의 6% 이내 그리고 용수공급금액의 20%이내에서만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지출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법률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벌여 발전수익금의 20%이내 용수공급금액 30% 이내로 지원사업비 제한선을 상향키로 했음.

3) 대전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막개발·헛공약

열린우리당 권득용(동구)	① 인터넷 교육방송 자체 실시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인터넷 강의 운영 - 예산계획 : 구비로 지원 - 서버구축관리, 강사료 등 연간 1억원 - 사업기간 : 임기 2년부터
선정사유	EBS 등 기존 교육방송과의 경쟁력확보 방안이 없고, 실제로 양질의 교육방송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함.

<소명자료>

- 인터넷 교육방송 자체 실시 관련
- 정책취지 : 저소득층자녀들에게 무료로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정책실천방안 :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인터넷 교육방송 자체실시(사업내용)
구청에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직접 과목별 인터넷 강의 실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든 가정에서 최고급 수준의 강의 받을 수 있도록 함.
인터넷 연결 불가능 가구는 공공기관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함.
-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 임기 2년차부터 실시
- 사업방법 : 언제나 인터넷 강의 받을 수 있음. 공공기관 개방으로 정보화 앞당김.
- 예산계획 : 총예상소요예산 10억원(1~2년차 7억원, 3~4년차 3억원 / 구비 7억원, 사회단체기금 3억원)

한나라당 이장우(동구)	② 특목고, 인터넷 스쿨로 고품격 교육환경 제공
세부내용	<p>양질의 교육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특목고 설치와 인터넷 스쿨 개설로 교육환경의 제고와 더불어 교육 양극화 해소</p> <p>1) 추진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특수 목적고 설립 - 전문 인터넷 교육 방송을 이용한 인터넷 스쿨 개설 - 대안학교 설립 및 홈스쿨링 지원 <p>2)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터넷 교육 방송과 연계한 인터넷 스쿨 개설 - 초등생부터 수능 까지 월 1만원에 공급 - 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차상위 계층부터 우선 공급 - 특목고와 대안학교 설립지원 <p>3) 추진기한, 절차 및 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스쿨 : 취임후 3개월 이내 기본계획 수립, 2007년 상반기 방송 시작 - 특수 목적고 : 2007년 상반기 까지 기본계획 수립, 2008년 개교 목표 - 홈스쿨 다각적 지원 <p>가칭 동구교육특화 추진단 발족(구청, 구의회, 투자주체, 동구민, 학계자문단으로 구성)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시민, 교육관계자, 투자주)- 설립방식 및 운영체제 결정(사업 시기, 민간투자방식 및 범위 운영방식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 추가시설비용 민간 투자 방식으로 최소화, 운영비 및 인건비는 참가비로 충당
선정사유	사립특수목적고의 유치, 인터넷방송은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이 낮음.

<소명자료>

- 정책타당성 : ①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 ② 사교육의 비대화로 인한 교육의 소외계층문제 해소
- 재원조달방법 : ① 관내 교사들의 참여하여 강좌 구성, ② 온라인 방송국 시설 등 하야드 투자 비용 최소, ③ 최소 콘텐츠 제작비(촬영비)와 온라인 교육방송국 운영, 시스템의 최소 투자 운영, ④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 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자 최소 비용 부담(월5,000-10,000원), ⑥ 교육 효과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회적인 예산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운영의 최소예산
- 실행일정 : ① 1단계(7-8월) : 현황 파악과 공청회 :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실행 계획 확정, 교육방송국 운영을 위한 필요 여건과 예산 항목 확정, 07년도 예산 반영. ② 2단계(9월 ~) : 교육방송 개국 준비. 예산 확보로 단계적인 준비, 사이트 제작과 콘텐츠 제작 ③ 3단계(~07.03) : 개국과 정착.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정착
- 성공을 위한 변수 : ① 강좌 수업의 질 : =>교사의 수업 강의를 이용하여 교사의 자기 개발 계기 제공. ② 최소 예산 확보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p>한나라당 이장우(동구)</p>	<p>③ 청소년 수련관을 영어마을로 전환. 숲교실, 전통문화와 연계한 영어체험파크</p>
<p>세부내용</p>	<p>청소년 수련관에 영어마을 기능 추가 후 세천 공원, 남간정사, 푸른 학습원, 대청담 생태 공원등 뛰어난 자연환경과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 체험 파크 운영</p> <p>1) 추진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 - 각 계절별, 시기별, 테마별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시범사업 실시 후 점차 대상지 확대 및 타 지역으로 확대 <p>2)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동 청소년 수련원에 영어마을 기능 추가 재편 - 세천 공원 및 식장산 일원에 숲교실 운영 - 남간정사등에서 전통문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상설화, - 청소년 수련원, 대청호 생태 공원등에 원어민 영어체험 프로그램 상설 운영 <p>3) 추진시기, 절차 및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예산투입이 되는 영어 마을을 기존시설을 우선 이용 - 취임후 6개월 이내 기본 계획 수립 - 2007년 4월부터 1차 "영어로 진행되는 숲 교실" 시행 - 2007년 하반기 이후 다양한 테마의 영어 체험 파크 운영 -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영어 교육기관을 차후 설립. - 가칭 동구영어마을 설립추진단 발족(구청, 구의회, 투자주체, 동주민, 학계 자문단으로 구성)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시민, 교육관계자, 투자주) - 설립방식 및 운영체제 결정 (사업 시기, 민간투자방식 및 범위 운영 방식 결정) - 예산 : 추가시설비용 민간 투자 방식으로 최소화. 운영비 및 인건비는 참가비로 충당
<p>선정사유</p>	<p>사교육적 영어교육을 구청이 추진하는 것으로 공교육을 통한 교육 정상화의 정책 방향 에 부합치 않고 예산계획 등 실현가능성도 낮음.</p>

<소명자료>

- 영어마을 운영안
- 정책의 타당성 : ①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하여 강화, ② 영어 사교육비 절감 효과(전체 사교육의 35% 수준).
③ 영어 활용 능력 증진, ④ 영어능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교육 역량 증진
- 재원조달방법 : ① 별도의 영어마을 투자와 운영이 아닌 기존 시설과 학교내 원어민 배치사업으로 실질적 영어교육
효과 기대, ②막대한 비용의 영어마을 투자와 운영은 실효성이 없음, 학교내 소규모 영어마을 운영(원어민1인
한국인1인이 팀수업 진행 형태), ③최소 투자는 민자를 유치하여 충당하고 구에서는 수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
한 원어민 공급과 교사 교육 등을 지원, ④관내에 소재한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건물 투자 최소화(청소년
수련원 한밭교육박물관 등)
- 이행계획 및 실행일정 : ①1단계(7-8월): 현황 파악과 공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실행 계획 확정, 원어민 교
사 확보 및 학부모 수요 조사, 구내에 소재한 적합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구내에 원어민영어마을 설치 가능 학교

와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져야한 학교 구분, 영어마을 등 동구교육 특구 프로젝트 추진본부 설치, 교실꾸미기 실시와 완료(1차 학교내 설치 학교 개강). ②2단계(9월 ~): 센터 개강와 운영/ 학교내 설치가능한 원어민 영어마을 운영과 문제점 보완. 센터 공사 마무리와 운영. ③3단계(~07.03): 정착/ 관내 초, 중, 고등학생, 구민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 정착. 정기적으로 영어마을의 교육 효과를 확인할 행사 마련. 구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성공을 위한 변수 : ①민간 업체 선정 =>원어민 영어 수급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 업체로 선정, ②대기업의 물량 공세로 전문 업체(학원 등) 위기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기업 참여 배제

무소속 이기호(중구)	④중구복지재단 설립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절대빈곤가정, 실업자 등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복지재단을 설립,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 - 예산계획 : - 사업기간 :
선정사유	중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할 경우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제시하지 못함.

<소명자료>

성장사회의 뒷그늘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여 풀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내,외부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집결하여 중구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절대빈곤가정, 차상위계층, 실업지등의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모든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지역공동체의 뜻이 모아져야 이룰수 있는것입니다. 지역주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때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하나된 중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가기산(서구)	⑤도시근교농업 소득증대사업을 추진
세부내용	- 공약내용 : 한우 브랜드단지를 조성,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 특화재배단지 조성 - 예산계획 : - 사업기간 :
선정사유	한우 브랜드단지 조성에 있어 사전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재원마련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전혀 없음.

<소명자료>

열린우리당 박영순(대덕구)	⑥ 영어체험마을 조성
세부내용	- 공약내용 :
선정사유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구청 차원에서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 성도 부족함.

<소명자료>

- 이유 : 타구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영어마을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 추구. 대전의 정신적 뿌리인 유학의 본고장으로 교육과 예향의 도시. 장동 지역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계족산과 삼림욕장이 있어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과 연계하면 교육·관광이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것. 대전지역에 영어체험마을이 없어 타 시·도로 교육을 가는 형편.
- 장소 : 장동 768번지 일대. 시와 협의하여 현재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여 대전·충남권을 포함하는 영어마을 조성
- 관련법 :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 13조 - 개발제한구역내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가능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교부의 별도 승인 없이 시행 가능
- 이행계획 :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체험 마을 조성계획에 공동 참여하여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한다.
교육 경비 보조 조례를 통해 확보된 예산의 일부를 영어 체험 마을 운영 및 저 소득층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다.
2006년 투자유치 완료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함.

우수공약 리스트 발표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자체 사업추진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실현가능한 계획성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적지 않았다. 이에 우수공약도 선정하였다. 우수 공약은 정책자문단회의를 거쳐 집행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다만 막개발 헛공약에 선정되었다 해도 해당 후보자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처럼, 우수 공약이라 해서 해당 후보자의 다른 공약이 모두 우수했던 것은 아니다. 아울러 우수공약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이행 계획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1) 10대 베스트 공약

- ①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충과 주민참여 행정 (중구 박용갑, 이기호, 대덕구 박영순, 송인진, 김창수)
- ② 서비스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센터설립 운영 (서구 김용분)
- ③ 비정규직 종합지원센터설립운영 (서구 김용분)
- ④ 작은마을도서관 설립 운영 (동구 권득용, 중구 전종구, 이은권, 서구 김용분)
- ⑤ 학교의 지역사회공간화 추진 (서구 김용분)
- ⑥ 학교급식지원 및 개선 공약 (유성구 노중호, 진동규, 박종선)
- ⑦ 대학 자원을 활용한 학습지원제도 (동구 권득용, 대덕구 정용기, 유성구 노중호)
- ⑧ 공공청사 친환경시설 설치 및 민간설치시 지원조례 제정 (동구 박병호)
- ⑨ 1동 1간호사 방문간호사제 (동구 이장우)
- ⑩ 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동구 이장우, 대덕구 송인진)

2) 후보별 우수공약 리스트 선정

선거구	출마자	정당	공약명
동구	권득용	열린우리당	① 결식아동제로 4개년 프로젝트 ▶ 선정사유/ 연차별 계획첨부 ② 교육돌보미제도 ▶ 선정사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 재정계획까지 포함 ③ 우리가족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 선정사유/ 접근이 용이한 생활도서관 만들기
동구	이장우	한나라당	④ 맞벌이부부를 위한 24·24보육시스템 ▶ 선정사유/ 생후24개월 영아24시간 보육센터설립, 공공보육시설 확충 ⑤ 1동1간호사제를 주축으로 한 방문간호사제 ▶ 선정사유/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정책.(단 재정계획 취약)
동구	박병호	무소속	⑥ 공공청사 친환경시설 설치 및 민간설치시 지원조례 제정 ▶ 선정사유/ 에너지합리화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임의조항임.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과 지원은 바람직.
중구	전종구	열린우리당	⑦ 알뜰도서관 건립 ▶ 선정사유/ 주민 스스로 만들고 운영한다는 설립운영의 철학이 반영되었고 재정계획도 첨부됨.
중구	이은구	한나라당	⑧ 실버,비만,어린이성장클리닉 교실운영을 통한 21세기 웰빙 보건서비스 추진 ▶ 선정사유/ 보건소 기능이 확충 추진 단, 도시형보건지소의 설치 추진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의 확충에는 제한됨 ⑨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꿈꾸는 도서관 운영 ▶ 선정사유/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도서관으로 활용 목표 제시, 자치센터가 지역도서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과정설계 취약함.
중구	박용갑	국민중심당	⑩ 주민자치행정 ▶ 선정사유/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와 공개행정 약속 (단, 주민참여예산 편성조례 제정 등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은 취약)
중구	이기호	무소속	⑪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선정사유/ 갈등 민원의 조정 합의기구 설치를 통한 협치형 행정 모색 ⑫ 중구토론광장(중구 Agora) 개최 ▶ 선정사유/ 개방적인 주민참여형 구정현안 토론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증진 모색
서구	김용분	열린우리당	⑬ 서비스업 중심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시스템 개발 ▶ 선정사유/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정책 수용에 부응함 ⑭ 비정규직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선정사유/ 서비스업 종사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은 현실에 맞춘 공약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 법률구조, 복지지원, 기타 상담지원의 종합 서비스 제공 추진 필요성에 부응 ⑮ 학교복합화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공간개발 ▶ 선정사유/ 교육청 지역학교와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학교의 지역사회 공간화 추진이 바람직.
서구	가기산	한나라당	⑰ 녹색교통도시 조성관련 지구단위교통개선사업 추진 ▶ 선정사유/ 답보되고 있는 지구단위교통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정비, 교통체계 개선,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조성 추진
서구	김경시	국민중심당	⑱ 여성지위 향상관련 여성 공무원 승진비율 제고 ▶ 선정사유/ 승진실태 및 현황에 근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여성공무원 우대방침을 밝히고 있음

선거구	출마자	정당	공약명
유성구	노중호	열린우리당	<p>⑱ 희망급식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2010년까지 초등학교 완전무료급식 시행의 연차별 재정 계획까지 밝힘 <p>⑳ 기초생활대상자 처우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수급비 인상 및 저소득 자녀의 무상개인 교습제 실시, 수급비 인상액 5% 등 구체적 실현계획 포함
유성구	진동규	한나라당	<p>㉑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지원품목과 단계별계획, 재원계획이 포함돼 실현가능성이 높음.
유성구	신현관	민주노동당	<p>㉒ 일용노동자 고용지원센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일용직 근로자의 소개비 없는 일감 알선 추진 <p>㉓ 어린이놀이터의 청결하고 안전한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어린이놀이터 안정성 확보라는 주민 요구 수렴
유성구	박종선	국민중심당	<p>㉔ 초등학교 무료급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결식아동과 생계형 맞벌이 부부, 경제취약자 등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단계별로 무료급식 실시
대덕구	박영순	열린우리당	<p>㉕ 지방자치를 위한 3가지 약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주민평가단 운영, 계약심사제 도입과 같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단체 운영설계 제시
대덕구	정용기	한나라당	<p>㉖ 상가주변 일방차로제 적극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등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상가지역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 <p>㉗ 지역대학과 연계한 자녀학습지원 멘토링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대학생자원을 활용한 학생멘토링이라는 실효성있는 정책
대덕구	송인진	국민중심당	<p>㉘ 투명한 지방자치,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감동행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행정서비스시민평가제, 사회감사제, 주민자치활동지원조례, 시민옴브즈만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실질적 주민참여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
대덕구	김창수	무소속	<p>㉙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유/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발전을 심화시킴으로서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공약